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 작은 마음

제 2155호 2020. 9. 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제1독서 : 지혜서 3,1-9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31ㄴ-39
복 음 : 루카 복음서 9,23-26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신부님 말씀

# 순교자들의 후예

18지구 목5동 성당
황성준 세례자 요한 신부님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9월이 무슨 성월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순교자 성월이랍니다. 순교자 성월 중에서도 특히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은 우리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 기억하는 성인들께서는 우리나라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셨기 때문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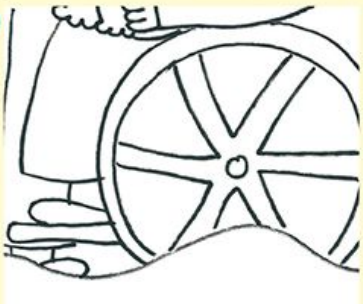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성인, 동료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순교자'라는 점이지요. '순교'는 죽음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인들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나라에서 하느님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당시 우리나라의 법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온갖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느님을 배신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답니다. 박해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인들은 절대로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더더욱 믿고 따랐으며 확신했답니다. 그 결과 순교라는 커다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자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피의 순교'는 사실상 어렵지만,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는 '백색 순교'를 할 수 있어요. 비록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한다는 점이 순교 정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활 속에서 백색 순교를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오늘 기억하는 순교 성인들처럼 분명 우리도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신부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이신 예수님, 제가 순교 성인들을 본받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충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29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소금통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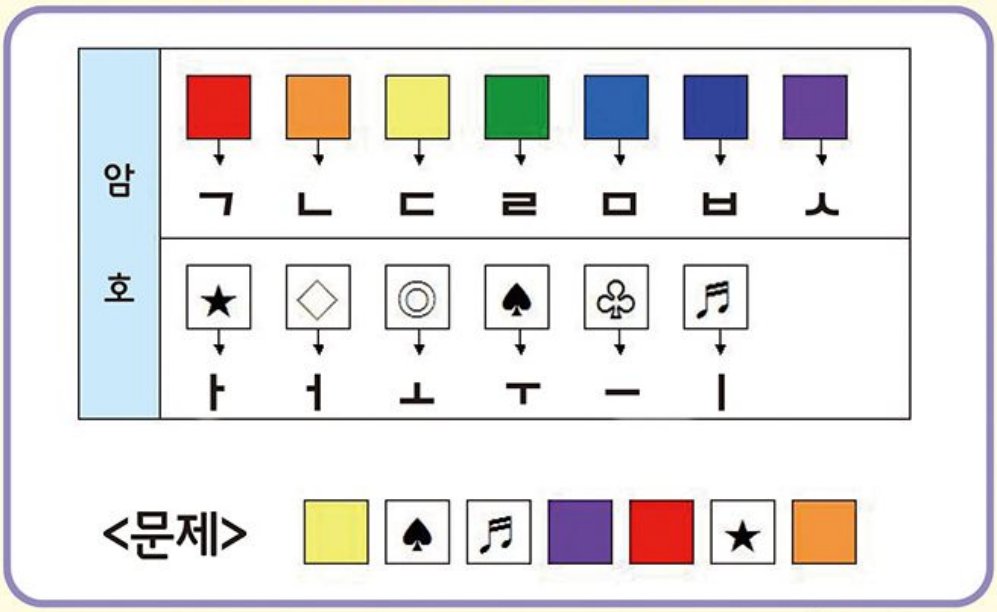
① 신부님 ② 학자 ③ 순교자

도란도란 성경여행

## 예후가 바알 숭배를 없애다 (열왕기 하권 10, 18-27)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 버리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모여 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다.
예후는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

*** 열왕기 하권 10장 18-27절을 읽고,
예후가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글/그림 최진태 임마누엘

◆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오 16,24) ◆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해요

구로1동 성당 이현섭 다니엘

구로1동 성당은 김대건 신부님을 모시는 성당입니다.
어린이 미사 후 작은마음 주보를 읽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신부님 오른편은 하늘 문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